

몽골 · 러시아의 자연과 관광지대

A Study on the Nature and Tourist - region of Mongol and Russia

강승삼^{*)}

I. 서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 선용으로 인하여 관광지역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광이 갖는 의미도 단순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풍경을 견학하는 차원을 떠나, 경제적 활동 · 사회적 활동 · 문화적 활동 등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의 장소로서 혹은 환경보전 재생의 장소로서 그 의미가 확대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야 개발되기 시작한 몽골, 동부러시아 이르쿠츠크시, 바이칼호 관광지대를 찾아 그 실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관광지대에 대한 답사는 1996년 7월 몽고를 거쳐 러시아의 바이칼호를 답사하였고, 그 외 대학, 관청, 박물관 등의 조사자료를 참고하였다. 몽고에서는 수도 울람바토르시를 중심으로 하는 펠레지 지역, 러시아에서는 동부러시아의 역사도시인 이르쿠츠크시를 중심으로 하여 바이칼 호수 및 그 주변 지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몽골의 자연과 관광지대

서울 김포 공항을 출발하여 3시간 30분만에 몽고의 수도 울람바토르에 도착하였다. 도착한 울람바토르 공항은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한적한 중소도시의 공항을 연상케 하는 황야에 도착한 느낌이었다.

우리가 탄 대한항공도 여름에만 다니는 비정기 노선이라고 한다. 몽고의

* 전남대학교 교수

수도 울람바토르시의 느낌은 파란 하늘에 대 목장지대, 대 초원지대, 대 골프장을 연상케 하는 느낌이었다. 시내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고 자가용도 다니기는 하지만 시내의 교통은 혼잡한 편이 아니었다.

몽고의 면적은 1,566,500km²로 한반도의 약 7배인 국토의 대부분이 초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고도는 평균 1,580m이다. 인구는 약 235만명으로 수도 울람바토르 내 6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1995년 현재). 대부분이 할화, 브리샤트, 오미라트족이며, 수도인 울람바토르는 ‘붉은 영웅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한다. 1921년 중국의 근대 국가인 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평균 고도 1,000~1,500m의 고은 내륙국으로 동부와 남부는 저지이고, 북부와 서북부는 산지이다. 서측도 사얀 산맥, 알타이 산맥 등이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주로 중생대층과 신생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생은 스텝(steppe)을 이루어 산림 스텝 지역도 존재하며, 고비사막은 사막 스텝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원지대에서는 목축, 곡물, 채소를 재배한다. 산업은 석탄, 석유, 폴리브텐, 동 등을 산출하고 있다.

불교의 일파인 라마불교 유적이 존재하고 몽고 특유의 유목주택인 ‘겔’이 유명하다.

국립 자연박물관에도 공룡 화석, 암석, 사자, 호랑이, 곰, 늑대, 독수리 및 원주민들의 생활상이 전시되고 있다. 말은 1인 당 200마리를 소유하며, 조랑말이 주를 이루고, 그 외 염소, 면양, 말, 소, 낙타 등을 방목하고 있다.

봄 3개월, 여름 3개월 정도이고, 여름의 기온은 30℃ 이상을 상회한다. 겨울이 6개월로 특히 겨울은 -50℃의 강추위를 기록한다. 여름에는 낮이 길어 5시에 해가 뜨고 22시가 되어야 해가 진다. 반대로 겨울에는 10시에 해가 뜨고 16시가 되면 암흑세계로 변한다. 말하자면 여름 3개월이 가장 생활하기 좋은 반짝 해뜨는 달이고, 겨울은 춥고 암흑세계인 셈이다.

고생대 칼레토니아 조산운동으로 산맥이 형성되어 오랜 기간동안 침식으로 준평원화된 후 신생대 제 3 기 대 지괴운동으로 지루성의 산지가 형성되

었다.

몽고의 관광지대로 알려진 곳이 울람바토르 서동쪽 78km 지점에 있는 데레시이다. 이 지역은 화강암지대로 하천은 소하천이 흐르고 있고 '미국의 소그랜드 캐년'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랜드 캐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형이다. 그랜드 캐년은 대 코로라도 상이 만든 대 협곡으로 퇴적암층의 층리가 대장관을 이루고 있으나, 몽고의 이 데레시 지역은 대 협곡지형도 아니고 퇴적암지형도 아니다. 암석은 적색 화강암으로 토루라는 암탑이 발달하고 있고 절리동굴 등이 발달하고 있다. 거북바위도 화강암이다.

또한 중생대 말기 백악기에 분포했던 공룡의 60%가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고 하여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대 화석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무암 및 화산탄, 화산 등은 주로 알타이 산맥에 분포하며, 현재는 사화산이 되어 있다. 처음 공룡화석이 발견된 것은 1922년으로, 그 이후부터는 초식의 디노사우르 공룡을 비롯한 육식공룡화석 알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 때인 3~4세기 경에 몽고를 침략한 적이 있고, 반대로 13세기 경에는 몽고의 징기스칸이 고려를 침략하여 그 때 마산, 제주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1996년 7월 11일은 1921년 청나라에서 독립한 지 75주년, 징기스칸이 단일 제국을 건설한 79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공산당인 혁명당 지배 하에서 1990년 민주화 운동으로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1992~1996년 사이에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1996년 개혁당인 야당 민주연합이 승리함으로써 제 2의 건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은 유목에서 가축을 기르는 목축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광, 유통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말·낙타·소·양·면양 등의 목축을 주로 하고, 양과 등을 재배한다. 공업으로는 의류·신발·식료품·석탄·물리브덴·생수·피혁공업이 행해지며, 화력발전소도 3개가 있다. 생활용품을 보면 1\$는 530 투르그로, 중고자동차가 \$3,500(운송비 \$2,000, 자동차 \$1,000),

TV가 26만 투르그, 향수 5,200 투르그(8,000원), 보드카 \$10, 지도 \$10, 말 \$100(8만원), 소 \$200(16만원), 양 \$40(32만원), 개는 무료이다.

월급은 교수가 \$59(40만원), 보통 \$50~100 사이이다. 식대는 일식 200원 정도이다. 주식은 양고기, 치즈, 소고기, 말고기, 낙타고기가 주식이나 마유주를 즐겨 먹는다. 도시의 경우에 아파트 생활자가 50% 정도이고, 50%가 켈에서 생활한다. 아파트는 국가 소유가 50%, 개인 소유가 50%로 이루어져 있어 매매가 가능하다. 토지는 전 지역이 국가 소유로 임대 형태이다.

교통은 주로 2차선 포장도로이고 시내를 달리는 교통수단은 도르레 버스, 일반 버스, 자가용 택시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많이 달리고 있었다.

교육제도로는 초등학교 3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4년, 전문대학 2년이다. 대학은 국립이 10개, 사립이 8개 정도이다. 대학생은 2만명, 고등학생은 5만명으로 10명 중 4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중학교 중 2개 학교에서 한국어가 외국어로 선택되어 한국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생활풍습을 보면 묘지제도는 없고 전통적으로 황야에 버려져 뼈만 매장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대로 매장하는 것도 행해지고 있다.

1225년 징기스칸이 기마병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한 “나담 축제”는 7월 11일, 12일, 13일에 전 국민의 축제로 행해지고 있다. 씨름, 승마, 활쏘기 등 시내 롤장 남동쪽 초원지대에서 열린다.

우리 나라 민족은 몽고 계통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증거로 ‘몽고반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후 6~9개월 사이에 몽고반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몽골 계통의 한국인, 일본인에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다.

몽고인의 제주도 침입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비슷한 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몽고와 한국의 동일어로 오른쪽, 왼쪽, 물허벅 등이 있다. 조랑말로 원산지는 몽고이며, 키는 작으나 날렵하고 사방으로 방향 전환이 민첩하여 기마로서 우수하다고 자랑한다.

한국 교포는 약 150명 정도로 봉제, 학교, 선교사, 비닐 하우스, 병원,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는 국가의 통제, 권력의 중앙 집중, 국민의 창의성 저해, 까다로운 허가, 말 뿐인 개방과 자유 속에서 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고는 점차적으로 학교가 생기고, 신문,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생겨 위성방송으로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앞으로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모색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점진적, 계속적으로 모든 면에서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III. 러시아 동부의 최대 도시 이루꾸스크 관광지대

지난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바이칼 호를 찾았다. 몽고의 수도인 울람바토르 공항을 출발하여 1시간 30분만에 러시아 동부의 최대 도시인 이루꾸스크 공항에 도착하여 시내 호텔에 투숙하였다.

이루꾸스크시는 바이칼 호로 들어가는 관문도시로 이루꾸스크 주에 속한다. 이루꾸스크 주는 면적이 775,000km²로 러시아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며 한반도의 3.5배에 해당한다. 1995년 현재 인구는 286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3.7명/km²이다. 이 주의 최대 도시는 이루꾸스크이고, 그 외에 앙가르코스, 부라츠크시가 있다.

교통은 육상, 항공, 수상교통이 발달하고 있고,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바이칼~아므르 철도를 통하여 화물 수송이 용이하다. 항공로는 이루꾸스크시와 모스크바, 북경, 심양, 장춘, 리가다(일본), 울람바토르(몽고)와 연결되고 있다. 수로는 바이칼 호수로 네나강 수로를 통하여 목재, 비철금속 등의 수송이 가능하다.

이루꾸스크시는 러시아 동부의 중심도시로 풍부한 자원과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주 중의 하나이다. 시의 인구는 60만 명으로, 한국인(고려인)이 1,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주로 기술자, 교수, 기

업가 등으로 대학 교육자가 95% 이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국회의원이 탄생한 적이 있고, 국회의원은 모스크바에서 생활하고 있다. 1994년부터 직접선거에 의해 시장이 선출되었고, 대학은 13개소나 되며 과학기술 연구소가 많다고 한다.

회사는 14,000개 정도로 과학 · 문화 · 경제의 교류가 빈번하다. 성 비율은 남성 47%, 여성 53%로 여성 비율이 높고, 99%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건물은 제정 러시아 때 동부의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 역사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건물 전면에 1894년 착공, 1897년 완공, 1893년 착공, 1901년 완공이라고 표시된 100년 이상의 100년 이상의 건물이 많고, 예술적 작품으로 인정할만한 유명 건축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3년, 중학교 10~11년, 대학 5~6년이다. 교통수단은 도로에 버스, 택시 등이 있고, 시내 중심가에는 시내 궤도전차가 달리고 있었다.

산업은 목재 · 무기 · TV · 오디오 · 전자제품 공장을 비롯하여 알루미늄 · 항공기 제조 등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바이칼 호를 이용한 3개의 수력발전소가 있어, 동부 러시아에서 전력이 가장 값싸고 전력을 이용하는 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상품을 보면 수입상품이 대부분이고, 일본과 미국 제품이 많았고, 한국 자동차로는 대우와 쌍용의 무쏘가 달리고 있었고, 삼성전자도 진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신문, 잡지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간이 판매점이 많아 그 곳에서 모든 상품이 판매되며, 일종의 슈퍼마켓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동차는 대부분이 중고차로 고물차가 행진하는 모습이였다.

월급은 박사 소지 교수가 \$300~800이고 보통 교수 월급은 \$150(12만원) 정도이다. 화폐 단위로 \$1는 5,120 루블이다.

그리고 토지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공원에는 노출증이 심한 여자들이 데이트를 즐기며, 시내를 관통하는 앙가라 강가에는 맑은 물에

뉘시하는 모습과 강변에서 아마추어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그런 대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대로 주를 이동할 수 없고 여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IV. 바이칼 호의 자연과 관광지대

세계에서 제일 수심이 깊은 호수 바이칼 호

세계에서 제일 투명도가 높은 호수 바이칼 호를 답사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꿈에서만 꾸어왔던 바이칼 호수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신성한 바다, 신성한 호수, 러시아의 영혼이라 불리우는 바이칼 호수는 17세기부터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이칼 호수보다 더 아름다운 호수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바이칼 호수는 몽고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1시간 3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의 이루꾸스크주의 행정 수도인 이루꾸스크시에서 동쪽으로 6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총 길이는 636km로 반달 모양을 하고 있다. 폭도 가장 큰 폭이 86.6km이고, 그 면적은 31,500km²이다.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1,663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고, 90%가 음료수로 사용되며 336개의 지류가 이 호수에 유입된다. 투명도는 -43m로 가장 깨끗한 호수이다.

이루꾸스크시에서 30분 정도 앙가라 강 상류로 올라가면 댐이 있고, 댐 상류에 앙가라 강이 호수를 이루고 있다. 호수를 이루고 있는 입구에 바이칼 호 주변 마을을 순환하는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 여객선을 타고 앙가라 강의 담수호를 1시간 정도 상류로 올라가면 바이칼 호수 입구에 도착한다. 입구에서 본 바이칼 호의 전경은 실제로 사방이 끝이 안보이는 망망대해의 태평양을 연상케 한다. 조그만 배에서 뉘시를 하는 강태공들, 뜨거운 태양열에 발산하는 안개 등이 대 장관을 이룬다.

바이칼 호수는 최근의 신생대 제 3기(약 5,500만년 전~2,000만년전 사이)

의 지반운동으로 함몰된 단층호수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수 차례씩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바이칼 호수는 100만년 전에는 따뜻했었다. 호수도 알았고 대협곡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다양한 열대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그 후 제 4기(100만년)의 빙하시대가 도래하면서 거대한 파란 호수가 이 협곡에 생겨나게 되었다.

물의 총량은 23,000km로 세계 담수층의 25%를 차지하며러시아 담수의 86%를 차지한다. 미국의 5대호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볼가강, 돈강, 디네퍼강, 에니세이강, 우랑해, 오브강, 갠지스강, 오리노코강, 아마존강, 템즈강, 세느강, 몰더강의 물을 거의 전부 이 바이칼 호에 담을 수 있다.

산맥 사이의 침강에 의해 이 호수는 3개의 분지로 구분된다. 남부 분지, 중앙 분지, 북부 분지로 구분된다. 최종적으로 이 호수의 물은 앙가라 강을 따라 시베리아 해호 흘러나간다. 주변의 암석은 주로 고생대 층으로 화강암, 편마암이 주이다. 이 곳에 사는 동물은 25,400종이나 되고, 수 많은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겨울이 되면 1월 20일 경에 호수가 동결되어 5월 20일 경이 되어야 해빙되기 시작한다. 동결 두께는 180cm나 된다.

겨울철에는 주변 40개의 호반 마을에서 얼음 낚시를 위한 오두막집들이 지어지고, 운송수단은 주로 눈썰매를 이용한다. 겨울의 평균 기온은 -20℃ 정도이다. 멀리 떨어진 마을의 경우에는 수송품을 트럭이 운송한다.

바이칼 호수가 신비로운 것은 바다표범이 담수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것인데, 이것은 제 4기(빙하시대)에 얼음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바이칼 호수에 정착하여 살고 있단느 것이다. 빙하시대가 끝나고 이 곳이 너무나 먹이가 풍성한 호수이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호수 연안의 마을은 한적하고 개, 소 등이 마음대로 돌아 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3시간 정도 호수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 쪽 연안에 조그만 마을과 함께 바이칼 호수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는 각종 지도, 책들

이 진열되어 있고 조사자료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중년부인이 열심히 설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며, 세계에서 가장 동식물이 풍부하고 오늘도 지진이 9번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시 배를 타고 바이칼 호에서 가장 깊다는 위치에 들어서면 선원들이 물을 떠서 먹어보라고 하며 완전 무공해 생수, 생명수라고 자랑한다. 바이칼 호의 생명수를 마시고 주변의 원주민이 생활했던 민속촌을 둘러보고 또 다시 앙가라 강 상류에 도착하여 이루꾸스크시로 향했다.

밤 11시가 되어야 해가 지기 때문에 백야를 연상케 한다.

다음 날 공항에서의 통과는 까다로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인상을 느끼게 하였다. 국제공항이라기 보다는 지방도시 공항이라는 인상을 질게 하였다.

V. 결론

몽고는 대초원지대를 이용한 목장,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지 개발과 더불어 관광지대가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그리고 고비 사막, 바이칼 호와 연계해서도 그 발전이 가속화되리라고 본다. 러시아에서는 이루꾸스크시의 역사도시로서의 고전미, 수려함과 앙가라 강의 경치, 호반의 도시로서의 그 명성은 더욱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더욱이 바이칼 호수의 세계 최대 호수로서의 자연적 가치는 앞으로 러시아의 개방과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지대를 형성할 것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Aleksei Freidberg, 1990, *Baikal*, Paneta Publishers : Moscow.

Alexander Kniazev, 1994, *Baikal*, Intereko.

Baikal National Park, 1993, *Lake Baikal(Map)*.

Baikal National Park, 1993, *Lake Baikal*.

몽골 · 러시아의 자연과 관광지대

Monglia, 1986, *Monglia(Map)*.

Mongolia, 1993, *Mongolia*, Ulanaanbaa Tar, Littere Ltd : Prag.

Tohnw, Morris, *World Geography*, McGraw - Hill Book Cpmpany.

Yakov Brodoski, 1989, *Lrkoutsk - Baikal*, Editions Planeta : Moscow.

임철호, 1996, 지리, 백산출판사 : 서울.

정승일 외 2인, 1996, ASIA, 교학연구사 : 서울.